

증권/보험 주간동향 배당수익률로 접근하면 보험업종의 바닥 확인 가능

18.05.28(월)~18.06.01(금)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439	1,515,478	1.1	9.9	11.5	-0.9	-3.0	0.5	-1.5	-1.2	-2,028	113	96	2,666	10,239
KOSDAQ	883	170,900	2.7	19.4	14.6	1.7	0.8	3.1	12.1	10.6	-148	394	59	659	2,660
보험	18,046	20,897	0.6	13.1	5.3	-2.4	-8.3	-14.3	-14.3	-14.6	-48	-25	-17	55	147
증권	2,108	21,957	0.9	10.0	9.4	-2.1	-2.5	-0.7	3.0	6.1	-7	-29	7	50	154
삼성생명	102,500	20,500	0.6	13.3	4.7	-4.2	-12.4	-15.6	-18.7	-17.7	-50	6	-18	28	48
한화생명	5,570	4,838	0.5	8.1	6.4	-3.8	-10.6	-17.0	-22.2	-19.4	-5	-12	-2	6	11
ING생명	40,400	3,313	0.9	9.2	9.7	2.8	-1.9	-23.5	-24.8	-24.3	2	-2	1	2	10
동양생명	7,160	1,155	0.5	7.7	6.1	-1.9	-13.1	-0.4	-8.9	-5.8	-1	-0	-1	0	2
삼성화재	254,000	12,033	1.0	12.0	8.3	-0.6	-5.0	-12.1	-1.7	-4.9	-6	-9	1	7	32
DB손해보험	58,500	4,142	0.8	5.7	13.7	-2.8	-7.0	-15.8	-13.3	-17.8	-3	-0	0	6	15
현대해상	34,550	3,089	0.8	5.4	15.4	-2.4	-9.7	-16.3	-18.6	-26.5	-1	-3	1	2	14
메리츠화재	20,050	2,212	1.1	6.5	18.2	-1.2	-4.3	-12.3	-18.2	-14.7	2	-3	1	1	4
한화손해보험	6,990	816	0.6	4.9	13.3	0.4	-6.9	-19.7	-17.3	-14.1	3	-2	-0	1	2
삼성증권	36,200	3,233	0.7	9.1	7.9	-3.3	-2.4	-8.6	-0.7	-1.1	-6	4	1	6	23
미래에셋대우	9,280	6,183	0.9	11.4	8.2	-2.9	-5.1	0.0	-9.9	1.0	-15	-3	0	15	47
NH투자증권	15,800	4,446	0.9	10.8	8.9	-3.4	1.3	10.5	15.8	13.7	12	-10	7	11	27
한국금융지주	94,500	5,266	1.3	10.0	14.0	0.4	3.7	20.4	40.8	37.0	4	-2	1	11	27
키움증권	125,000	2,762	1.5	10.6	16.2	2.5	5.5	26.1	54.3	42.7	9	-9	-1	8	29

자료: 개별 보험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및 증권사 추정치는 Inquir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Valuation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유럽의 정치적 Risk과 미중/미EU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주요국 장기채권 금리가 급락하였고 보험업종의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였음.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이익 및 배당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음</p> <p>▶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0.38%, 0.07% 처분 결정: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금산법 규정에 따라 금융계열사(생명, 화재)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 삼성전자 잔여분의 지분율은 삼성생명 8.5%, 삼성화재 1.5%임. 처분이익 시현에 따라 배당재원 확대 및 RBC비율 개선 기대됨. 조달금리 상승 부담이 1년간 공시기준 이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p> <p>▶ 현대해상,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확정, 최대 7억달러 조달: 현대해상, 이사회에서 올 3분기 5억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시장 여건에 따라 최대 7억달러까지 발행할 계획</p>
증권	<p>증권업종 약세 시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증권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삼성전자 불력으로 인하여 지난주 목요일 삼성전자 거래대금은 3.2조원까지 증가하였고 KOSPI 거래대금이 13조원을 돌파하였음. 금리 흐름 및 거래대금, 신용잔고, ELS 상황 및 발행 등에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면 증권업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p> <p>▶ 미래에셋대우, 3년간 배당성장 최소 25% 유지: 미래에셋대우, 25일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배당성장 최소 25%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전년대비	Monthly								Quarterly					
			17.12	18.01	18.02	18.03	18.04	18.05 누계	MoM	2Q17	3Q17	4Q17	1Q18	2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6.7	85.3	12.1	15.8	13.0	12.4	14.3	15.0	4.9	8.9	8.2	11.8	13.8	14.6	6.0	
KOSPI	9.9	85.0	5.5	7.1	6.9	6.9	7.8	9.0	15.7	5.6	5.2	6.0	7.0	8.4	20.7	
KOSDAQ	6.9	85.7	6.6	8.7	6.2	5.5	6.5	6.0	-8.2	3.2	3.0	5.8	6.8	6.2	-9.1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2.5	26.7	9.9	11.3	11.2	11.3	12.2	12.5	2.3	8.5	8.3	9.9	11.3	12.5	10.2	
KOSPI	6.2	38.1	4.5	4.8	5.3	5.4	6.0	6.2	3.6	4.2	4.0	4.5	5.4	6.2	14.4	
KOSDAQ	6.3	17.3	5.4	6.5	5.9	5.9	6.2	6.3	1.0	4.4	4.3	5.4	5.9	6.3	6.4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4	2.2	1.85	1.84	1.84	1.89	1.85	1.85	0.4	1.47	1.53	1.85	1.89	1.85	-4.0	
3년	2.19	7.2	2.13	2.27	2.27	2.22	2.22	2.20	-2.2	1.70	1.89	2.13	2.22	2.20	-2.2	
5년	2.48	14.7	2.35	2.57	2.52	2.43	2.49	2.48	-1.3	1.90	2.08	2.35	2.43	2.48	5.2	
10년	2.70	21.0	2.47	2.77	2.74	2.62	2.72	2.70	-2.2	2.21	2.37	2.47	2.62	2.70	7.3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7	-0.2	5.8	6.5	5.8	6.2	6.4	6.1	-0.3	5.9	6.2	6.0	6.2	6.2	0.0	
미래에셋대우	12.2	-0.4	13.2	13.6	13.2	13.1	13.2	12.8	-0.3	12.5	12.7	13.2	13.3	13.0	-0.3	
NH투자증권	6.2	0.2	6.6	6.4	6.1	6.3	6.4	6.4	0.0	5.9	5.7	6.4	6.3	6.4	0.1	
한국금융지주	4.9	-0.9	5.6	5.9	5.5	5.5	5.5	5.2	-0.3	5.7	6.1	5.8	5.7	5.3	-0.3	
키움증권	17.6	1.0	18.1	17.7	17.5	17.1	18.5	18.2	-0.2	16.0	15.3	17.4	17.5	18.3	0.9	

자료: KOFIA, Check, KRX

4. 급주 전망

보험	<p>- 전주에도 보험업종이 하락하며 신저가를 갱신하였음. 글로벌 금리 하락이 빌미가 되었지만 보험업종 관련된 뉴스 및 지표, 업황 측면에서 신저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됨</p> <p>- 삼성생명의 경우 이미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수준이었지만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후 이익 증가, 배당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일에 크게 하락하였음. 기대감이 현실화되며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현재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함. 보험업의 영업적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매우 낮음</p> <p>- 하지만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배당수익률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보험업종의 영업적 측면에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보험업종의 이익 안정성에 대부분 동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현재의 주가를 접근한다면 최소한의 저점은 확인될 것으로 생각함</p> <p>- 1분기는 컨센서스 대비 부진하였지만 2분기에는 사업비 부담 축소, 자동차손해율 상승폭 축소 등을 통해 최근 악화된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p> <p>- [참고] 커버리지 보험사 배당수익률 (2018F)</p>
----	--

단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ING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배당수익률 (2018F)	3.6	2.5	6.3	4.3	4.8	4.1	4.6	5.2

증권 - 증권업종 관련 Comment는 커버리지 개시후 시작할 예정임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6월 4일	미국	4월 내구재 수주	MoM, %	-1.7
6월 6일	미국	4월 무역수지		-49.00B
6월 7일	유로존	1분기 GDP	QoQ, %	0.4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05/28 (월) ▶ 중국 "동양·ABL생명 매각 안해"...보험사 M&A 당분간 잠잠 (에너지경제)</p> <p>중국 보험감독위원회 관계자, "인방보험은 당분간 ABL생명과 동양생명을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 ING생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신한금융지주의 '배타적 협상기한'이 이달 초 종료</p> <p>▶ 미래에셋, 통합감독 첫 타깃 되나 (서울경제)</p> <p>금융통합감독에서 신NCR대신 구NCR을 적용. 이에 따른 금감원 건전성 시뮬레이션에서 7개 그룹 중 미래에셋대우 하락 폭 제일 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 자본건전성에 대해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부분 차감 여부, 미래에셋생명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후순위채의 자본 인정 여부 등을 문제로 제기. 금융위는 7월 2일부터 금융통합감독 모범규준 실시, 법개정 추진할 계획</p> <p>05/29 (화) ▶ 미래에셋대우 "3년간 배당성향 최소 25% 유지" (매경)</p> <p>미래에셋대우, 25일 이사회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배당성향 최소 25%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p> <p>▶ 현대해상, 글로벌 영구채 발행확정, 최대 7억달러 조달(마켓인사이트)</p> <p>현대해상, 28일 이사회에서 올 3분기 5억달러 규모 글로벌 영구채 발행 결정. 시장여건에 따라 최대 7억달러까지 발행 계획.</p> <p>▶ 현대해상 차보험 점유율 20% 눈앞...삼성화재 아성 위협하나 (건설경제)</p> <p>1분기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19.9%. 전년동기대비 +1.4%p</p> <p>▶ 보험개발원 '감독당국, 'K-ICS' 도입 경과조치 뒤야'(연합뉴스)</p> <p>보험개발원, '신(新)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보험사 대응전략' 보고서 발표. 감독당국에 선도채권·이자율스와프·공동재보험 등 경과조치 도입마련 필요성 제시</p> <p>▶ 160조 퇴직연금, 발행어음 투자 물고 트인다 (머니투데이)</p> <p>금융위,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을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투자상품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에·적금 풀린 만성적 저수익 해소 차원</p> <p>05/30 (수) ▶ 교보생명, 최대 1조원 해외 신증자본증권 발행 추진(인베스트조선)</p> <p>교보생명, 지난해 이어 올해 7월말에도 해외 신증자본증권 발행 예정. 5억달러에서 최대 10억달러 될 듯</p> <p>▶ 보험계약 유통화, 생보사 자본확충 묘수 될까 (인베스트조선)</p> <p>생보업계, 보험계약 유통화도 자본확충 방안으로 거론. 유령보험사들은 이미 활용. 국내에선 법 개정 필요해 현실화 미지수에 감독당국도 아직까진 회의적인 입장.</p> <p>▶ 웬만한 보험사보다 덩치 커진 GA...여전히 '감독 사각지대'</p> <p>M&A 통한 GA 대형화 가속화로 GA코리아·KGA에셋 합병 땐 설계사 2.4만명...삼성생명 맞먹어. 보험상품 주력 창구로 부상했지만 불안전판에 1차 책임은 보험사. "법개정해 직접 배상책임 물어야"</p> <p>▶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조선비즈)</p> <p>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현장조사에 나서.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p> <p>▶ H지수 '총량규제' 해제...반년도 안돼 관련 ELS 3배 급증 (매일일보)</p> <p>지난해 말 H지수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총량규제가 일몰되고 대외환경도 개선됨에 따라 H지수 관련 ELS 발행 급증.</p> <p>▶ 증시 변동성 커지자 "알아서 투자해주세요" 랩어카운트 증가 (머니투데이)</p> <p>증시 변동성 확대로 랩어카운트 상품 활발. 해외시장까지 포트폴리오 다양화된 점도 매력. 증권사 입장에서선 신규 고객 유치 뿐 아니라 안정적 수수료 이익 가져갈 수 있어.</p> <p>▶ "이탈리아 쇼크"...미국증시 금융주 폭락 vs 국채금리 추락</p> <p>이탈리아발 금융 불안과 미중 무역갈등 재발에 미 국채금리 하락 및 미국 대형 금융주 타격.</p> <p>05/31 (목) ▶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0.38%, 0.07% 처분 결정 (당사 리포트 참고)</p> <p>삼성생명 http://bit.ly/2kBe7MR 삼성화재 http://bit.ly/2skVSQ2</p> <p>▶ NH繼, 초대형IB 본격 시동...연말까지 발행어음 1.5조 판다(머니투데이)</p> <p>경영채 사장 "자본시장 플랫폼 구축 한국형 투자은행 새 모델 제시할 것"</p> <p>▶ 신한금융, ING생명 인수 안한다(매일경제)</p> <p>MBK와 협상 최종 결렬...매각작업 장기화할 듯</p> <p>06/01 (금) ▶ 금감원 "삼성증권 제재수위 7월 내 마무리" (디지털타임즈)</p> <p>이달 제재심의위 안전상경 예정. "국민적 관심 높아... 신속히 확정" 시장선 기관경고급 중징계 관측</p> <p>▶ 우리은행 "증권사 인수 검토중...삼성증권은 아냐" (한국경제)</p> <p>우리은행 고위 관계자,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 삼성증권은 인수하지 않을 것"...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증권사는 없지만 중소형 증권사를 포함해 매물이 나온다면 적극적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p> <p>▶ 최중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추가 계획 계속 지켜보겠다" (비즈니스포스트)</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439		1.1	9.9	11.5	3.1	-0.9	-3.0	0.5	-1.5	-1.2
	보험	18,046		0.6	13.1	5.3	0.6	-2.4	-8.3	-14.3	-14.3	-14.6
	삼성생명	102,500	19.1	0.6	13.3	4.7	0.5	-4.2	-12.4	-15.6	-18.7	-17.7
	한화생명	5,570	4.5	0.5	8.1	6.4	0.4	-3.8	-10.6	-17.0	-22.2	-19.4
	ING생명	40,400	3.1	0.9	9.2	9.7	1.1	2.8	-1.9	-23.5	-24.8	-24.3
	동양생명	7,160	1.1	0.5	7.7	6.1	0.5	-1.9	-13.1	-0.4	-8.9	-5.8
	삼성화재	254,000	11.2	1.0	12.0	8.3	1.3	-0.6	-5.0	-12.1	-1.7	-4.9
	DB손해보험	58,500	3.9	0.8	5.7	13.7	1.3	-2.8	-7.0	-15.8	-13.3	-17.8
	현대해상	34,550	2.9	0.8	5.4	15.4	1.2	-2.4	-9.7	-16.3	-18.6	-26.5
	메리츠화재	20,050	2.1	1.1	6.5	18.2	1.8	-1.2	-4.3	-12.3	-18.2	-14.7
	한화손해보험	6,990	0.8	0.6	4.9	13.3	1.1	0.4	-6.9	-19.7	-17.3	-14.1
	증권	2,108		0.9	10.0	9.4	1.0	-2.1	-2.5	-0.7	3.0	6.1
	삼성증권	36,200	3.0	0.7	9.1	7.9	0.9	-3.3	-2.4	-8.6	-0.7	-1.1
	미래에셋대우	9,280	5.8	0.9	11.4	8.2	0.7	-2.9	-5.1	0.0	-9.9	1.0
	NH투자증권	15,800	4.1	0.9	10.8	8.9	1.0	-3.4	1.3	10.5	15.8	13.7
	한국금융지주	94,500	4.9	1.3	10.0	14.0	0.0	0.4	3.7	20.4	40.8	37.0
	키움증권	125,000	2.6	1.5	10.6	16.2	2.3	2.5	5.5	26.1	54.3	42.7
일본	Nikkei225	22,171		1.7	16.2	10.1	1.9	-1.2	-1.3	4.7	-2.4	-2.6
	보험	1,028		0.8	11.1	7.1	0.6	-1.6	-1.8	7.7	-1.5	-3.0
	Dai-ichi Life Holdings	3,664	23.7	2.0	42.7	4.7	2.6	-1.2	-4.2	0.1	35.2	24.8
	Japan Post Insurance	2,449	13.4	0.7	16.1	4.6	0.1	-1.9	-8.8	-7.7	-0.5	-7.5
	Tokio Marine Holdings	5,298	36.2	1.0	14.5	7.3	1.1	-0.4	2.0	9.8	3.4	3.1
	증권	408		0.8	9.9	8.3	0.6	-2.5	-4.6	-3.8	-4.0	-6.0
	Nomura Holdings	571	19.0	0.7	7.9	9.0	0.6	-2.7	-7.4	-10.7	-14.1	-14.1
	Daiwa Securities	640	9.9	0.8	9.9	8.6	0.6	-1.5	-3.2	-7.8	-8.0	-9.5
	SBI Holdings	2,927	6.0	1.4	12.8	11.9	1.2	-4.8	-1.6	20.6	44.6	24.2
	Hang Seng	30,493		1.3	11.8	12.7	1.1	-0.3	1.9	-0.3	4.6	1.9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3,221		1.4	12.1	12.1	1.2	-2.1	-0.5	-5.5	-7.1	-7.0
	보험	159		1.3	11.3	11.1	1.8	-0.4	2.7	-10.4	-11.8	-12.0
	China Life	22	100.4	1.4	12.1	12.6	1.5	0.2	-1.1	-3.9	-12.8	-10.2
	Ping An Insurance	77	177.4	2.1	11.5	19.4	1.6	-0.5	0.8	-6.5	2.5	-4.9
	AIA	71	109.2	2.4	19.0	13.0	2.6	0.6	1.8	10.2	12.3	6.5
	증권	109		1.2	16.5	8.0	51.8	-3.8	-7.9	-10.3	-18.8	-13.6
	CITIC Securities	20	34.2	1.2	15.2	8.7	2.1	0.8	3.9	13.0	16.6	21.8
	Haitong Securities	10	17.6	0.7	9.9	7.6	1.8	-1.4	-9.0	-11.6	-15.9	-13.7
	Huatai Securities	15	17.7	0.9	11.2	8.8	2.0	0.0	-3.4	-1.8	-3.8	-1.4
	S&P500	2,735		3.1	17.2	18.5	3.6	0.3	2.7	1.6	3.6	2.3
미국	보험	381		1.3	11.8	10.7		-1.4	-0.1	-1.7	-6.9	-5.2
	AIG	53	47.8	0.7	10.9	6.7	0.9	-0.8	-2.8	-5.7	-11.0	-10.6
	Metlife	47	47.4	0.9	9.2	10.3	0.7	-2.8	3.6	2.5	-13.0	-7.7
	Prudential Financial	99	41.5	0.9	8.1	11.6	0.6	-1.5	-2.4	-6.4	-14.4	-14.0
	증권	208		2.2	15.3	12.7	1.4	-1.3	2.2	-0.8	2.3	2.7
	JP Morgan	108	369.1	1.5	12.1	13.4	1.2	-2.5	0.4	-4.3	3.4	1.4
	Goldman Sachs	228	89.6	1.2	9.9	12.1	1.0	-3.3	-2.4	-11.5	-8.3	-10.4
	Charles Schwab	57	76.5	4.2	23.3	19.1	1.3	-2.4	1.9	7.8	14.6	10.4
	MSCI Europe	130		1.8	14.6	9.8	1.0	-1.1	-0.1	5.4	-0.2	-0.7
	보험	75		1.1	10.7	11.8	0.5	-2.8	-4.5	-0.7	-2.9	-2.4
유럽	Allianz	180	92.3	1.2	10.4	11.4	0.8	-4.2	-9.8	-2.3	-8.2	-6.2
	AXA	22	61.8	0.7	8.4	8.6	0.5	-2.7	-8.5	-12.9	-13.5	-11.7
	Prudential plc	1,841	63.7	2.7	12.6	20.4	0.6	-1.6	-2.5	2.8	1.4	-3.4
	Munich Re	181	31.5	1.0	10.9	9.0	1.0	-4.0	-6.0	1.6	-2.0	0.1
	증권	72		1.1	14.4	6.9	0.6	-3.3	-5.2	-4.2	-6.8	-8.8
	UBS	16	60.2	1.1	11.1	9.5	1.0	-2.2	-1.6	-12.2	-7.2	-11.6
	Credit Suisse	15	39.8	0.9	12.7	7.1	0.4	-4.7	-6.7	-5.8	-5.7	-10.2
	Deutsche Bank	9	22.7	0.3	18.3	1.7	0.3	-9.4	-17.7	-25.0	-40.3	-40.7

자료: 한국 보험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및 증권사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42	1,850	1,845	1,835	1,828	1,853	-0.8	-0.3	0.7	1.4	-1.1
		3 Year	2.187	2,202	2,217	2,265	2,077	2,134	-1.5	-3.0	-7.8	11.0	5.3
		5 Year	2.482	2,485	2,490	2,517	2,270	2,347	-0.3	-0.8	-3.5	21.2	13.5
		10 Year	2.702	2,720	2,717	2,735	2,485	2,467	-1.8	-1.5	-3.3	21.7	23.5
일본	국고채	1 Year	-0.140	-0.140	-0.137	-0.160	-0.174	-0.145	0.0	-0.3	2.0	3.4	0.5
		10 Year	0.048	0.041	0.043	0.043	0.035	0.048	0.7	0.5	0.5	1.3	0.0
중국	국고채	1 Year	3.171	3,132	2,988	3,287	3,689	3,834	3.9	18.3	-11.6	-51.8	-66.3
		10 Year	3.645	3,636	3,648	3,854	3,920	3,902	0.9	-0.3	-20.9	-27.5	-25.7
미국	국고채	1 Year	2.257	2,247	2,244	2,033	1,607	1,732	1.0	1.3	22.4	65.0	52.5
		10 Year	2.902	2,931	2,964	2,808	2,362	2,405	-2.9	-6.2	9.4	54.1	49.7
유럽	국고채	1 Year	-0.536	-0.567	-0.554	-0.576	-0.640	-0.611	3.1	1.8	4.0	10.4	7.5
		10 Year	0.386	0.406	0.559	0.644	0.305	0.427	-2.0	-17.3	-25.8	8.1	-4.1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유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